경전, 부처님과 소통하는 지름길



원욱 스님의 경전산책

① 경전산책을 시작하며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고(禪是佛心)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며(敎是佛語)
율은 부처님의 행동이다. (律是佛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이는 바로 부처님입니다.

만물이 형성되고 사라져가는 이치를 모두 깨달아 아시며, 모든 이들에게 행복의 길을 안내하시는 우리 부처님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분입니다. 먼저 행복의 땅에 도착하시고는 뒤돌아 우리들을 향해 길을 인도하시는 그 스타일만 보더라도 어리석음으로 꽝꽝 얼어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저절로 풀어집니다. 어떤 때는 대기설법(對機說法)의 간곡한 설명으로, 때로는 이심전심(以心傳心)의 눈짓과 마음으로, 혹은 응병시약(應病施藥)처럼 손을 꼭 잡고 문 앞까지 이르게 하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를 위해 애쓰시는 부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교의 목적지인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 참선, 간경, 기도, 행원 등으로 늘 수행합니다. 하지만 사실 깨닫고 난 이후엔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에 대해, 못 깨달았으니 알 수는 없으나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아마 일상에서 고민하던 일이 해결 되고나면 느껴지는 만족감과 시원한 해방감처럼, 해탈의 느낌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해탈의 느낌이 온 몸을 가득 채우고 더 나아가 우주에 가득해 지는 이 기쁨의 순간을 바로 행복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 때 중생은 환희용약하고, 부처님은 여여부동하시겠지요. 일상의 행복과는 확연히 다르지만. 또한 일상의 행복과도 같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삶에서 느끼는 소소한 깨달음조차도 나를 변화시킴으로 이루어지며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고정화되어 있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새로운 관점을 만나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과 만나면서 그동안 교육을 통해 형성된 명예와 출세, 청렴과 재물, 건강과 욕망의 사이에서 이룩해 온 모든 가치관들을 재배치하는 변화의 물결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깨달은 이의 가치관을 우리도 가지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다 부처님이다〉는 일체중생실유불성(一切衆生實有佛性)으로 세상을 보는 일입니다.

그동안 세상을 바라봤던 이중적 차별의 눈에서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보는 부처님의 안목을 지닌 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멋진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전지자에게 그냥 맡기면 되지만, 우리 불교는 나를 변화시키는 수행으로 행복의 길을 갑니다. 갈고 닦는 수행의 길은 몸보다 흔들리는 마음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이럴 때 곁에서 나를 지켜주며 의지처가 되어야 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늘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겠지요.

부처님의 가르침인 말씀을 통해 삶에 지치고 흔들리며 분노하는 나를 편안하게 안정시키고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도 다 편안하게 해 줄 때 우린 다 같이 행복해 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소통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효과면에서 최고인 언어를 통해 부처님도 중생을 교화하셨습니다. 깨닫고 난 후 45년 동안 중생들과의 소통했던 설법은 팔만대장경이 되어 지금도 우리 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경전은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지녀야 하며, 행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대기설법〉과 〈응병시약〉이란 완벽한 형식을 통해 반드시 행복의 땅, 불국토로 인도한다는 진실성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전을 읽는다는 것은 그 속에 담긴 부처님의 정신과 마음을 헤아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경전이 어렵다고 말하기 이전에 부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먼저 내야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경전을 A에서 Z까지 찾아가는 마음으로 각 경전의 핵심을 스토리텔링을 통해 즐거운 〈경전산책〉을 떠나볼까 합니다. 마치 부처님이 우리 곁에서 매 순간 다정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만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서울 반야사 주지〉

인격 배양 · 정신 수양 〈금강경〉에 다 있다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① 혁명시대의 금강경

부처님께서 가장 밝으실 때 설하셨다는 금강경, 부처님 마음이 담겨있다는 금강경, 이런 금강경 공부를 시작하지 50년이 되었다. 서당 개가 삼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 말처럼, 아마도 금강경을 이처럼 오랜 세월 읽었다면 아무리 업장이 지중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어떠한 변화를 체험하게 되면서 부처님을 다소나마 닮는 변화를 체험할 것이다.

나 역시 금강경 공부를 통하여 확실히 변하였다. 부처님을 다소나마 닮게 변하였다. 부처님께서 모든 사람이 부처님처럼 보이시듯, 나의 눈은 사람들의 단점보다 장점을 더 많이 보게 변하였으며, 성 잘 내는 기질은 남을 이해하며 감싸 안는 기질로 변하였으며, 받는 것을 좋아하는 성품(性品)은 주는 것을 더 좋아하는 마음으로 변한 것이다.

나는 못된 사람이 변하여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도 있듯, 주위에 나쁜 사람이 변하여 착한 사람이 된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생명과학자들은 이 시대를 흔히 '게놈혁명시대'라고 말한다. 이 시대를 '게놈혁명시대'라고 주장하는 생명과학자들은 사람이 태어날 때 가져온 DNA속의 유전자를 분석하면 그 사람의 식성, 재주, 병적 소질 등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런 이론은 사람들의 사주팔자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자신의 유전자(게놈)속에 간직되어 정해진다는 뜻과도 동일한데, 나는 이들 생명과학자들의 주장처럼 태어날 때부터 운명은 정해져 있다. 나쁜 사람은 착하게 변하지 않는다. 라고 믿어 왔던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변한 것이다. 전해 내려오는 속담을 거스르고, 현대과학의 이론을 뒤집는 기적을 나는 이룬 것이다. 어째서 이런 기적을 이루게 되었는가?

아마도 이런 기적의 주역은 백성욱 박사(전 동국대 총장)라는 걸출한 선지식과의 만남 때문이라 하겠다. 혜능대사는 육조단경에서 "만약 스스로 깨닫지 못하거든 마땅히 대선지식을 찾아서 바른 길을 지시받도록 할 것이니라. 선지식은 중생을 교화하여 견성하게 하나니, 모든 좋은 법은 선지식으로부터 능히 발기(發起)되기 때문이니라"라고 말씀하시듯, 선지식의 호념부촉(護念付囑)과 밝은 가르침이 자신의 변화를 이룩하는 기적을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이처럼 사람의 변화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선지식이란 과연 어떤 특징이 있는 분일까요? 선지식의 바른법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선지식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선지식이 가르치는 간화선은 정법이요, 깨닫지 못한 사람의 간화선은 사법이라 말하고자 한다. 선지식이 가르치는 위빠사나는 정(正)이요 깨치지 못한 사람이 가르치는 위빠사나는 사(邪)라 말하고자 한다. 즉 선지식은 어떤 형상이 없고 특징이 없지만, 무실(無實)이며 무허(無虛)인 가르침(이는 곧 금강경 가르침)을 통하여 사람들의 중생심을 불심으로 바꾸는 분이신 것이다.

나는 선지식으로부터 지도받은 가르침을 현실 생활에 접목하려 복을 지으며, 결국 원효스님의 "종종심생(種種心生) 종종법생(種種法生), 종종심멸((種種心滅), 종종법멸(種種法滅)" 즉 "마음이 일어날 때 현실이 발생하고, 마음이 사라지면 현실 역시 사라진다."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진리를 확실히 이해하게 되었다.

즉 미워하는 대상이 있다 하더라도 미운 상대는 그가 아닌 자신의 마음임을 알게 되었고, 그 자신의 마음이란 것 역시 실은 착각이요 공(空)하여 없다는 (공의) 진리 역시 알게 되었다.

(아마) 앞으로 이 코너에서 말씀드릴 금강경에 관한 내용들은 수도의 길에서 자신이 바뀐 이야기를 비롯해, 선지식의 중요성, 금강경 공부의 핵심내용, 금강경 공부를 통한 사람의 변화, 금강경의 현실에의 응용 등이 될 것이다.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망상 알아차려 '이뭣고' 하면 … 저절로 자기 근본 드러나

수행(修行)이란 지금 이 순간마다 깨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화선에서 간(看)은 '볼 간(看)' 자를 써서 빛을 안으로 돌이켜 화두를 본다는 의미인데, 동시에 오직 모르고 모르는 마음자리를 대의심(大疑心)으로 지어 간다. 마음은 전도몽상(顚倒夢想)서 깨어나기 전에는 결코 이치로는 알 수 없다. 유무를 넘어선 절대 가운데 머물러 쉬는 것이 머무름 없는 무주(無住)이다. 제불보살 께서는 언제나 이곳에 계신다. 그곳이 바로 눈앞에 환히 드러나 있지만, 무명(無明)에 눈이 가려진 중생들은 눈 뜬 장님이 되어 망상(妄想)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이다.

'심생즉종종법생(心生卽種種法生) 심멸즉종종법멸(心滅卽種種法滅)'이라고 했다. 이 말은 한 마음이 일어나니까, 그에 따라 온갖 경계가 펼쳐지는 법이고, 한 마음이 없어지면 온갖 경계도 없어진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억지로 무념무상(無念無想)을 만들려면 외도가 된다. 만들려는 그 마음이 본래 자리를 가릴 뿐만 아니라 밖으로 찾아 나서게 하여 평지풍파(平地風波)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보리자성(菩提自性)이 본래 청정하다는 것을 꼭 믿고 모든 망상(妄想)을 알아차려 '이뭣고' 하면 저절로 근본이 드러날 터인데, 원숭이같이 천지사방을 돌아다니며 온갖 좋다는 법을 다 배워 채워 넣어 알음알이만 오히려 가중시키니 소화도 못시키고 본래 자리로 돌아올 날은 더욱더 아득하기만 한 것이다. 불법은 본래의 보리자성을 생활속에서 '이뭣고'로 활용함으로써 우주(宇宙)의 정기(精氣)인 신통력을 자유자재로 부릴 수 있는 힘을 증득하게 되는 것이다. 나무와 나무사이에도 얼마간의 작은 틈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있기에 나무들은 크고 작은 것이 서로 어우러져 숲을 이루며 살아가듯이, 사람이 함께 살아 가는 것도 너와 내가 같아야만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각자 아름다운 꽃동산을 이룰 수 있다. 즉 나무와 같이 각자의 다름과 틈을 인정하고 존중해 줄 때 조화를 이루며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다.

생활속의 '이뭣고' 수행, 다름의 차이 인정 가능
분노는 나약함의 증거지 강함의 증거가 아니다

그러려면 상대방으로 인해 화(禍)나 짜증이 났을 때 그것을 바로 알아차리고 '이뭣고' 하고 내 자신을 객관화 시키면 마음이 그 짜증과 미움의 대상에 끌려가지 않고 멈추게 된다.

한 예로 옆 차선서 달리던 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끼어 들었을 때, "가족중 누군가 위중해서 병원에 저렇게 급하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 하고 '이뭣고' 하면 화는 금방 사라짐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저 차가 내 차와 충돌해 큰 사고가 나지 않은 것만 천만다행이네" 하고 또 '이뭣고' 에 감사하면 만사가 형통해 진다. 바로 이것이 생활속의 '이뭣고' 수행이다. 대문호 톨스토이는 "분노는 나약함의 증거이지 강함의 증거가 아니다"라고 했다. 부처님도 "자비심(慈悲心)이 분노심(忿怒心)을 이긴다"고 설하셨다.

우리가 베푸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이뭣고'로 매사에 잘 인내하는 것이다. 화두(話頭)는 "아, 이런 것이구나!" 하는 이론적으로 중생의 사량, 분별심이나 교리적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저렇게 따져 알아 맞히는 것은 활구(活句) 참선이 아니고 사구(死句) 참선이다. 무슨 생각이 일어나건, 그것이 슬프고, 기쁘고, 노엽고, 괴롭든 그 생각을 억지로 지우려 애쓰지 말자. 그 자리에 '이뭣고' 하며 생각하는 이놈이 과연 무엇인고? 하면 묵은 업장(業障)까지 소멸되면서 만병의 근원인 모든 스트레스서 벗어나게 된다. '이뭣고'가 최상승의 활구 참선이요, 정법임을 믿고 수행하는 불자에게는 그 번뇌망상이 불보살의 손이요, 극락세계서 보낸 반야용선(般若龍船)이 된다. 하지만 믿지 않고 기복에만 매달리며 밖으로 헤매인 다면, 윤회의 굴레서 벗어날 수 없는 원수(怨讐)가 되는 것이다.



새해 벽두 저자와 함께 생활속에서 '이뭣고' 수행을 시작해 보자.

남양주 선재사 주지

제 98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7년 1월 31일 개강
◆ 강의일시 :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 (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 ~ 6개월 (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 (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 (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